

우리동네 순환거점 활성화

연천군 전곡리 청정연천 살리는 순환마을 만들기



고친다는 것, 고쳐서 쓴다는 것

주요성과 키워드

생태순환강사

플라스틱
대장간

리페어 카페

에너지 카페

가을퇴비

마을소개

전곡읍 전곡리는 전곡역을 중심으로 마을과 전통시장 등이 높은 인구 밀집도로 자리잡은 곳이다. 수려한 자연유산과 잘 보전된 생물권보전지역을 지척에 두고 있는 마을로서, 주민들은 대부분 자연유산에 대한 고마움과 함께 자부심을 지니고 있다. 순환카페1.5는 플라스틱의 폐해를 알리고 쓰레기 줄이기에 관한 공동의 실천방안을 찾고자 마을공동체 구성원들과 함께 노력하고 있다.

주요사업 및 추진결과

- 생태순환 강사와 활동가 11명 양성
- 세 차례의 리페어 카페를 통해 버려질 뻔한 선풍기 13대 수리
- 햇볕곡물건조기를 만들어 실제 농산물을 화석연료를 쓰지 않고도 건조시킬 수 있는 대안을 제시 (4대 제작)
- 음식물쓰레기와 농업부산물을 활용한 가을퇴비 만들기 워크숍수행
 - 음식물 쓰레기를 땅에 묻는 것의 폐해를 알리고 대안 강구
- DIY 태양광발전소(3kw) 짓기를 통해 공동체 품앗이로 공사하는 방법 공유

사업성과

- 자원순환 거점으로서의 기능과 역할 정립
- 다양한 네트워크 파생 및 교류 활성화
- 공동체 영화상영 등 공감의 공간
- 세미나, 재생에너지 장치 만들기 등 워크숍의 공간
- 자원순환 사례 체험과 강연의 공간

